

# 화초연구와 재배의 중심기지

-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아서 -



말린꽃제품

지금 온갖 꽃 만발한 5월이라 거리마다 꽃향기가 넘쳐나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화초연구와 재배의 중심기지로 꾸러진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았다.

연구소에 규모있게 자리잡은 온실들과 야외꽃밭에서도 갖가지 꽃들이 향기를 풍겨 이곳을 찾은 우리의 마음을 흥겹게 해주었다.

붉고붉은 장미, 오래동안 꽃이 피는 백일홍, 수탉의 벚을 연상케 하는 맨드라미, 보라색의 페튜니아...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이슬 머금은 꽃잎들과 윤택을 하는데 하였다.

우리는 리영수책임부원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가지 품

종의 선인장들을 가꾸고있는 온실로 걸음을 옮기었다.

이곳에서는 화초연구와 재배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어놓고 여러가지 품종의 선인장들을 가지심기와 접번식의 방법으로 가꾸고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리명선연구사는 생김새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선인장들을 접하는 방법으로 밝고 아름다운 색을 가진 수십종의 희귀한 선인장을 가꾸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재배한 선인장들을 방안장식에 많이 사용하고있는데 실내공기정화효과가 크고 모양과 색깔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여 누구나 좋아하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장미꽃을 키우고있는 온실도 돌아보았다.

예로부터 장미는 아름다움과 순결의 상징으로 일러 오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색깔을 가진 장미품종들을 재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9가지 색깔의 장미 수천포기를 재래 여러 단위에 보내주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 육종한 큰송이꽃장미는 관상효과가 크면서도 화단장식과 말린꽃제작에도 널리 리용할수 있어 원예부문과 화초애호가들의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어 우리는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와 미감에 맞게 장식용화초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해가

고있는 말린꽃제작소도 돌아보았다.

이곳 제작소에서는 액물, 꽃병, 꽃바구니, 벽걸이, 기념품함 등을 형성한 각종 말린꽃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새로 제작한 말린소나무는 솔잎의 원색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소나무줄기, 솔방울과 같은 세부를 구체적으로 형성하여 사람들이 실지로 살아있는 소나무를 보는듯 한 느낌을 준다.

원래 말린꽃제품은 꽃의 아름다움을 오래동안 보존하고 감상하려는 사람들의 요구로부터 생겨났는데 꽃의 모양과 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말린 꽃제품화하기까지는 까다로운 과학기술공정을

거쳐야 하고 많은 품이 든다고 한다.

이곳 연구사들은 습기와 자외선에 의한 변색, 변형을 막고 말린꽃제품들이 생화와 같은 아름다운 색과 모양을 오래동안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의 실정에 맞는 생산방법을 확립하고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는데 큰 힘을 넣고 있다.

연구소의 어디를 돌아보아도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특색있는 화초연구 및 재배기이라는 생각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는 우리에게 리영수책임부원은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화초재배와 생산에 참고할수 있도록

세계적인 원예발전추세와 화초재배에 관한 과학기술자료, 꽃제품자료들도 보내 주셨다고 이야기해주었다.

활짝 피어난 꽃들마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고 생각하니 서로 어우러진 빨강과 노랑과 하얀 꽃들이 꽃보라로 뿌러지는듯이 느껴졌다.

꽃의 향기, 생활의 향기 넘치는 이곳 화초연구소를 돌아보는 우리들의 눈가에 꽃향기 넘쳐나는 가정과 거리마다에서 문화정서생활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이 어려웠다.

본사기자 림광훈

## 어디서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겠다

평양화초연구소에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도록 화초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기자: 리철준 평양화초연구소 부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평양화초연구소에서 화초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하여 많은 꽃들을 생산해내고있는데 그에 대해 말해주었으면 한다.

리철준: 우리 연구소에서는 화초생산에서 계절적제한성을 극복하며 꽃생산을 조직배양하는 방법으로 인민들의 수요에 맞는 여러가지 꽃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앞선 화초재배기술과 경험을 받아들여 생육기간이 오래고 생활력이 강하며 번식이 잘될수 있는 품종의 꽃종자들을 신중히 선택하여 건조, 소독, 보관사업을 짜고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이룩한 꽃들을 국내의 조건에 맞게 품종순화시키고 새 품종의 꽃들을 육종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특립과 복수순화는 계절적 특색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대량재배하기 힘든 것으로 되어왔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늘줄기를 잠재우는데 적합한 온도를 찾아



## 인재증기하상과 정책의 생활력 증진

### 지난 10년간 근 1만명의 대학생과학 탐구상 수상자 배출, 많은 대학생들 국제경연무대에서 우승

인재육성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추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공화국의 인재증시정책에 받들려 주체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들이 자라나고 있다.

고등교육부에서 학생들을 창조적능력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개발창조형의 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지난 10년간에만도 근 1만명의 대학생과학탐구상 수상자들이 배출되었다.

지식과 지능을 겨루는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대학생들은 재능과 실력을 남김없이 떨치며 주체교육의 자랑찬 발전면모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99(2010)년 5월 함흥화학공업대학을 찾으시어 대학생들을 정보산업시대의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으며

두뇌로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더디고 올라서겠다는 만만한 야심을 지닌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생들은 높은 실력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과학의 첨단세계를 점령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정열을 쏟아부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이 발표한 논문들은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게재되어 학계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사회주의조선의 교육발전면모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척골공업종합대학 학생과 학원소조원들이 과학탐구활동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주체화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여러 공장, 기업소의 생산정상화와 현대화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삼지연건설을 비롯하여 중요대상건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외부형성 및 실내설계를 훌륭히 완성한 평양건축대학 학생들은 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실력을 발휘하였다.

한덕수평양공업대학, 원산수산대학의 학생들이 국내산 원료를 의지하는 우리 식

의 철강연구를 완성하여 국가에 리익을 주고 수산업발전에서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를 내놓은것을 비롯하여 새 세대 과학기술인재들이 이룩한 창조물들은 수없이 많다.

경제건설대진군을 추동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속에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만도 2,500여건의 발명 및 정보기술제품이 출품되어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각지 대학들에서 탐구열풍이 세차게 일어났던 지난 10년간 근 1만명의 대학생과 학원소조원들이 배출되었으며 학위유수자들이 수없이 나왔다.

공화국의 미더운 대학생들은 국제적인 경연 및 선수권대회에서 련이어 우승하여 조선로동당의 인재증시사상과 정책의 생활력과 주체교육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대학생들이 세계적인 프로그래머들의 대결장인 인터넷프로그래밍경연에서 처음으로 참가한 2013년

###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나무》책가방

금시라도 숲의 향기가 풍길듯은 《소나무》상표를 단 여러가지 모양의 질 좋은 책가방들...

이 책가방들에도 조국의 미래를 귀중히 여기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후대사랑이 깃들여 있다.

평양가방공장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그이께서는 완공된 공장을 찾으시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은 우리가 만들어 안겨주어야 그

들이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간직할수 있다고 하시였으며 가방상표도 몸소 《소나무》라고 지어주시었다.

오늘도 질세워 인의 본사기자



## 나무모생산을 대폭 늘인다

최근 2년간 강원도와 라선시, 남포시 등 각지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큰 규모의 양묘장들을 새로 건설하는것과 함께 시, 군의 모체양묘장들을 개건하였다.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으로 꾸러진 모체양묘장들에서는 한해에 2회전으로 나무모를 생산하고 있다.

평안남도 문덕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의 수지경관나무모은실은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나무모생산기지이다.

영양남도 단천시산림경영소에서는 현대적인 모체양묘장에서 지난 시기보다 나무모생산을 대폭 늘이고 있다.

평양시 강동군산림경영소에서도 새로 꾸러진 모체양묘장을 잘 운영하여 가까운 년간에 군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려 하고 있다.

양묘장들에서는 《금야속송》,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스트로브소나무, 밤나무, 다래나무, 돌베나무를 비롯하여 빨리 자라고 경제적가치가 큰 수백만그루의 나무모들이 자라고 있다.

본사기자

를 생산하고 있다.

평안남도 문덕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의 수지경관나무모은실은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나무모생산기지이다.

영양남도 단천시산림경영소에서는 현대적인 모체양묘장에서 지난 시기보다 나무모생산을 대폭 늘이고 있다.

평양시 강동군산림경영소에서도 새로 꾸러진 모체양묘장을 잘 운영하여 가까운 년간에 군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려 하고 있다.

양묘장들에서는 《금야속송》,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스트로브소나무, 밤나무, 다래나무, 돌베나무를 비롯하여 빨리 자라고 경제적가치가 큰 수백만그루의 나무모들이 자라고 있다.

본사기자



## 일자리로 보는 두 현실

현실로 착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거리낌없이 해고하고 있다.

기업이 입는 손실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수백수천명의 노동자들도 하루아침에 해고해버린다.

이것이 일자리문제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세계의 실상이다.

반면에 국가가 책임지고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사람답게 일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

조선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의 존엄높고 행복넘친 모습을 직접 목격한 로씨야의 한 인사는 방문록에 이런 글을 남기었다.

《사람들모두가 직업이라는것을 모르고 희망과 소리에 따라 배우고 일하는 사회가 다른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선에서는 인간이 향유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 정치의 근본으로 되고 있다. 무료교육, 무상치

현실로 착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거리낌없이 해고하고 있다.

기업이 입는 손실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수백수천명의 노동자들도 하루아침에 해고해버린다.

이것이 일자리문제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세계의 실상이다.

반면에 국가가 책임지고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사람답게 일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

조선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의 존엄높고 행복넘친 모습을 직접 목격한 로씨야의 한 인사는 방문록에 이런 글을 남기었다.

《사람들모두가 직업이라는것을 모르고 희망과 소리에 따라 배우고 일하는 사회가 다른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선에서는 인간이 향유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 정치의 근본으로 되고 있다. 무료교육, 무상치

로 등 국가적해택이 변함없이 근로대중에게 돌려지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사회의 물질문화적재부가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리지고 모든 사회적사책들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사회주의제도, 그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일자리걱정, 자녀들, 치료받을 걱정, 저녁들을 공부시킬 걱정을 모르고 살고있는 이 땅의 근로자들이다.

인류가 수수천년 바라고바라는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은혜로운 삶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근로자들과 초보적인 노동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고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자본주의나라 근로대중의 생활은 얼마나 판이한가.

극대대조를 이룬 판이한 두 현실은 근로대중의 락원과 지옥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홍범식